은행업권대출, 한도 대출(마통) : 2-30대상향, 4-70대 하향

비은행업권, 카드론 : 2-30대 하향, 4-50대 상향

신용대출: 상향(중도 상환 수수료)

주택담보대출, 정책 자금 대출: 하향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해야하는 수치인데

라인, 그래프, 도표,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라인, 그래프, 도표,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계속 감소

자가 주택 거주자 40대 이후 비율 평균 약 5%상향 반면 2-30대 감소,

특히 주택 거주자 수는 평이함에도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은 감소

보통 집값이 오를수록 올라가는 수치(투자를 위해 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어왔음(투기 방지)

부동산 투자용으로 주택을 소유하던 5-70층은 완화폭이 좁고, 2019-20년도 그 폭이 완화되고 70대는 상승까지함

19>20년도 잠시 완화되어 40대 이상의 주택담보 비율이 잠시 증가한거 같음

주택 담보대출 잔액은 증가함 그러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소수가 무리한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있다.

주택 담보대출 비율은 줄지만 신용대출과 함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남, 늘어난 총액에 대한 부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020.22012004699

라인, 그래프, 도표,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카드론은 주로 저신용자들이 애용, 카드론의 금리는 2020년도 이후부터 상승하였고

2-30대 는 그 이후 하락율 가팔라짐 그러나 70대는 상승라인, 그래프, 도표,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70대의 신용점수가 타 연령대에 비해 확 낮아지긴 하지만 그 외의 요인이 있을 것. 코로나 이전에도 상승하고 있었다

국가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며 카드론 대출자 수가 up, 충남은 이에 대한 방어가 잘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자영업자 비율은 20.1%, 충남은 25%로 전국보다 많은편, 20년도 코로나로 본격적인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이후 20대의 한도대출 비율이 급상승 한다 30대도 마찬가지로 상승, 다른 연령대도 하락추세에서 2020년도를 기점으로 반등하거나 하락 수치가 줄어든다.

이후 2022년 카드론 규제를 강화하며 이 수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 다만 한도대출 분야에서 2-30대의 한도대출 비율은 늘어났다

텍스트,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주택을 소유만 하고 살지는 않던(투자 목적이라고 해석)2-30대의 수는 감소, 내포신도시가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40대 이후는 오히려 늘어난다.

20대는 비자가 주택 거주자 수가줄어들고 20-70대는 비자가 주택 거주자 수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자신의 집이 아닌 집에서 살고있는 장 노년층의 수는 늘어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다른 수치도 늘어나는 것과. 비율로 따져보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충남 외부에서 5-70대 인구의 유입이 많아 보인다.

텍스트, 라인, 그래프,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30대의 주택 거주자비율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충남 외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30대가 늘어났다고 볼수도 있지만, 숫자를 비교해보면 단순히 거주자의 감소폭이 소유자의 감소폭보다 크기에 거주자가 감소한 것 같다.